

제 41 차
이사회 회의록

2014. 5. 29.

한국장학재단

제41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회의일시 : 2014년 5월 29일(목) 17:00 ~ 18:00

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24층 대회의실

출석이사 : 재적인원 11명 중 8명 참석

(이사장 1, 상임이사 2, 비상임이사 5)

- (이사장) 광병선 이사장
- (상임이사) 권광호 상임이사, 이대열 상임이사
- (비상임이사) 최은옥 이사(代 한위전 사무관), 김병주 이사(영남대 교수)
이영 이사(한양대 교수), 이홍 이사(광운대 교수),
임연기 이사(공주대 교수)

* 김기남 상임감사 참석

불참이사 : 3명

- 노형욱 이사, 김용범 이사, 황영기 이사

상정안건

- 보고안건(1건)

• 제41-1호 한국장학재단 방만경영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

- 의결안건(1건)

• 제41-1호 정관 개정(안)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개회선언 · 성원보고

- 간사(경영기획실장)로부터 성원보고(총 8명 참석)를 받음.
-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제4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
□ 전차회의 결과 보고

- 간사로부터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 보고를 원안 접수함.

□ 회의결과

- 보고 제41-1호 한국장학재단 방만경영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
: 원안 접수
- 의결 제41-1호 정관 개정(안) : 원안 의결

□ 보고안건 제41-1호 : 한국장학재단 방만경영 개선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전 주요내용

-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('13.12.11)에 따라 재단 복리후생 제도의 개선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하고자 함
- 주요 사항
 - 기재부 점검 항목 총 55개 중 9개 항목 개선 필요
 - 추진 현황
 - 개선이 필요한 9개 항목 중 노조 동의 없이 개선 가능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
 - 취업규칙이 당초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항목(5개)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진행 중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당초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임.
- 직원들의 지위나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. 노조와의 협이가 완료되는 대로 안전을 상정하겠음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접수

□ 의결안건 제41-1호 : 정관 개정(안)

(보고자: 경영기획실장)

가. 안전 주요내용
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정관의 관련 내용을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
- 주요 사항
 - 이사회 심의·의결 사항에 재단법에 따른 구상채권 등의 매각에 관한 사항 추가
 - 재단 사업범위에 고등교육기관에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관련 내용 추가

나.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연체 6개월 이상 채권을 매각한다면 매각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. 부실채권은 연체가 5년이 지나면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시에 매각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음.
- 대통령 공약이며 국정과제임. 2013년 2월 기준으로 매각 대상채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적정가격을 받는 것이 급선무임.
- 매각과 추심 한쪽만이 아닌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적정 매각에 대한 기준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.

다.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폐회 선언